

제2절 항공운송약관, 그 내용을 알고 있나요?

1. 항공권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A. 통상 운임으로 발행된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운송 개시일로부터 1년, 사용되지 않은 항공권은 발행일로부터 1년의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러나 할인 운임으로 발행된 항공권은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일 수 있기 때문에 항공권 예약 시 잘 확인해야 해요. 계약 조건에 따른 항공권 예약 등급(Booking Class)과 유효기간 등은 발권된 전자항공권(E-Ticket)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항공권은 유효기간 만료일 24시(자정)에 실효되기 때문에 만료일 24시 이전에 여행이 개시되어야 해요.

2. 항공권에는 사용 순서가 있어요!

A. 항공권은 출발지-중간 경유·체류지-목적지까지 순서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순서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환불 또는 무효처리 된답니다. 예를 들어, 인천-두바이-런던 항공권을 이용할 때 인천에서 두바이행 항공기를 개시하지 않고 두바이에서 런던행 항공편만 이용하거나, 런던에서 두바이행 항공편을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항공운임 산출 시, 출발지와 경유지·목적지뿐만 아니라 그 사용순서까지 포함되어 최적 운임이 결정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판매 항공사 또는 여행사에 알려 항공권 여정을 변경하거나 환불 후 새로운 항공권을 구매해야 해요.

3. 이중으로 예약된 항공권, 취소될 수 있어요!

A. 일부 항공사들은 항공사가 판단하기에 한 여객이 예약한 항공편을 모두 탑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여객에게 고지 없이 항공권을 취소하기도 해요. 그래서 탑승 구간이나 일자가 동일한 두 개 이상의 예약이 이루어졌다면, 예약자가 알지 못한 채 항공권이 취소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해요.

4. 탑승 수속 마감 시간이 있어요!

A. 전자항공권(E-Ticket)에 기록된 항공기 출발 시간에 맞춰서 공항에 도착하시면,

탑승을 거부당할 수 있어요. 많은 항공사들이 탑승 수속과 출국 수속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내 여객이 공항에 도착하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따라서 탑승 수속 마감시간을 준수하지 않음을 이유로 탑승을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요. 일반적으로 국내선은 항공기 출발 20분 전, 국제선은 항공기 출발 1시간 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항공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항공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마찬가지로 탑승 수속을 완료했다라도 항공사가 좌석 배정 시 안내한 시간까지 탑승구에 도착하지 않으면 항공사는 탑승을 거부하기도 해요. 탑승 수속 및 탑승 마감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항공사가 책임지지 않으니 꼭 주의하세요.

5. 항공권 일정이 변경될 수 있어요!

A. 항공운송약관에 의하면, 항공사가 예약 시 안내하거나 발권된 항공권에 명시된 운항 시간표는 예정에 불과할 것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운송계약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항공사는 이 규정을 근거로 예고 없이 운항 시간표를 변경하기도 한답니다. 심지어는 항공기를 변경·대체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사전 배정 받은 좌석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운항사가 변경될 수도 있고, 항공편이 취소되기도 해요. 이 경우 항공사는 미사용 부분의 운임을 환불하는 것 외에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여객의 호텔, 렌터카, 기타 입장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공권 구입 시, 반드시 휴대전화 등의 개인정보를 남겨야 하며 출발 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항공권 일정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어요.

6. 항공운송인도 책임이 있어요!

A. 항공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적인 부상이나 사망, 위탁·휴대수하물의 파손·분실·지연 등의 피해에 대해서 항공사는 책임이 있어요. 국제운송 시 책임은 주로 국제 협약에 따라 그 내용과 범위가 정해지는데, 어떠한 협약이 적용되는지는 출발국과 최종목적지국이 가입한 협약에 따라 정해져요. 국내운송이거나 국제운송이더라도 국제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법이나 항공사의 내부 규정이 적용되고요. 항공운송 과정에서 피해를 겪었다면, 운송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7. 고가의 위탁수하물은 반드시 위탁 전, 신고를 하세요!

- A. 위탁수하물의 파손 또는 분실 피해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국제 협약에 따라, 위탁수하물의 무게 또는 여객 1인당 배상 한도에 따라 배상금액이 정해져요. 그러나 고가의 수하물을 위탁 전, 항공사에 미리 신고하고 해당하는 종가요금을 일정 금액 납부한다면 수하물의 파손 및 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고된 금액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8. 여권과 비자 확인하세요!

- A. 항공운송약관에 의하면, 여권이나 비자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항공사가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객이 더 주의 할 필요가 있답니다. 대부분 항공사들은 여권 유효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탑승을 거부하고 있어요. 설령 탑승했다 하더라도 도착지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고요. 또한 목적지가 무비자로 입국 가능한 국가라 하더라도, 체류지·경유지가 비자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해요. 또는 무비자로 방문 후, 재방문 할 때에도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으니 방문하려는 국가의 비자 조건을 잘 살펴보셔야 해요.